

(사)대한제과협회 세미나실 오픈 기념

2005. 3. 24



1, 2 세미나실 오픈 기념식에는 구축사업을 주도한 협회 임원진과 최신 기계와 설비 마련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3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 페이스트리팀챔피언십 한국 선수들이 오픈 기념식을 기념하는 뜻에서 그동안 갚고 닦은 공예 작품을 선보였다.

## 중앙회관 세미나실 오픈 기념식

# 기술 발전 밑거름 될 세미나실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3월 24일 세미나실 오픈 기념식을 갖고 지난 2004년 건립한 중앙회관의 ‘기능화’를 명실공이 선포했다. 중앙회는 이번 세미나실 구축을 발판으로 소규모 자영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경영 ·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글\_김미선 기자 · 사진\_주현진

2004년 11월 개관식을 갖고 역사적인 서초동 시대를 맞이한 (사)대한제과협회가 지난 3월 24일 세미나실 구축을 알리는 오픈 기념식을 갖고 21세기 제과업계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실 오픈 기념식은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조병천 수석 부회장, 박찬희, 유현식, 주재근 부회장 등 이번 세미나실 구축을 주도한 협회 임원진과 최신 기계 및 설비 마련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모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협회회관 건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업계 원로와 업체 관

계자를 비롯해 모금 운동의 최고 일선에서 동분서주해온 전국 지회지부에 오늘의 벽찬 감회를 전하고 싶다”고 감사를 전하며, “이번 세미나실 오픈을 발판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중인 소규모 자영 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경영 ·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오픈 기념식에 참석한 (사)대한제과협회 이사진을 비롯한 업계 내외빈은 정일석 사무총장으로부터 세미나실 구축의 취지와 사업경과를 보고받고 “중앙회관이 명실공이 회원 모두의 기술 발전과 회합을 도모하는 ‘제과타운’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

다”면서 “연구실, 자료실, 역사 전시실 등의 구축사업도 하루 빨리 추진해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새로 단장된 중앙회관 세미나실은 지난 2월 냉난방 · 방수 · 상하수도 · 전기 등 기본공사를 마무리 짓고 여러 기계업체의 협조 속에서 최신시설의 제과 · 제빵 설비를 두루 갖췄다. 앞으로 제과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한 여러 회의는 물론 기술 및 경영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회원을 위한 ‘열린마당’으로 활짝 개방될 계획이며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던 국제대회 선수단을 위한 훈련장과 협회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 Special Thanks

(사)대한제과협회는 이번 세미나실 구축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업계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정공업  
WOO JUNG IND.CO.



(주)코 테 스



대흥기업  
DAEHUNG CORPORATION



반영기업

